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2016.10.31 | 새사연 노동연구팀 | smj@saesayon.org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새사연 노동연구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필자 주)

조사개요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득활동 목적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함.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의하는 저임금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함.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함.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함. 설문지 배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의의를 설명하여 최저임금 근방 또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한 URL 주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여성단체, 최저임금연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공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오프라인 조사가 726명, 온라인 조사가 207명이었음. 그중 유효한 설문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조사의 유효한 표본 수는 717개, 온라인 조사의 최대 유효 표본은 180개임. 문항별로 유효 응답률이 다르므로 문항별 표본 수 또한 다름.
- 이하에서는 오프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함. 오프라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함.
-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광주(24.8%)이고 다음으로 전라북도(17.4%)임. 다른 지역은 5% 내외(4.2% - 7.4%)에서 고르게 분포함. 응답자들의 연



령대는 37.7%가 40대, 22.3%가 50대, 30대가 19.5% 순으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3.3 세임.

그림 1. 오프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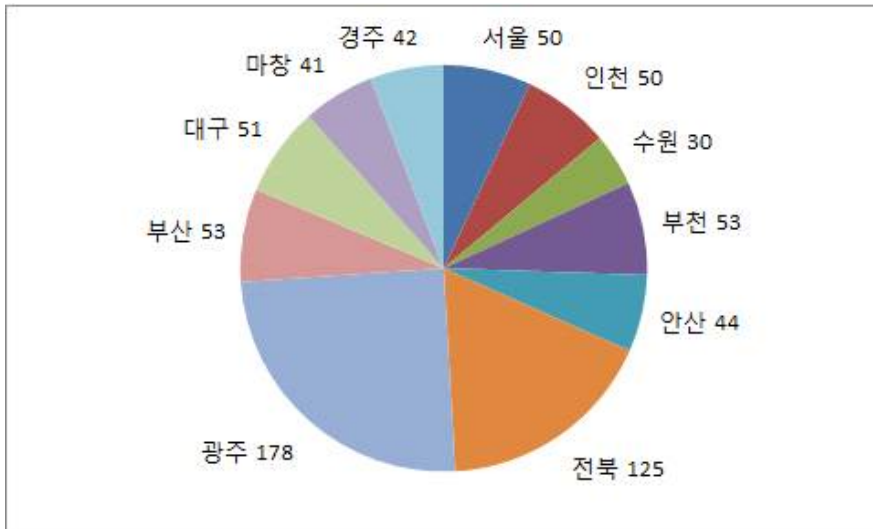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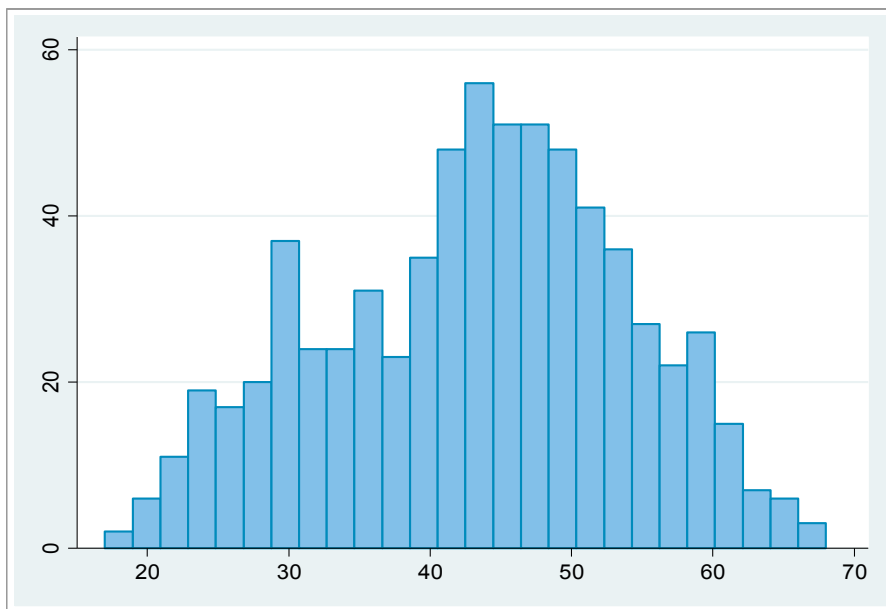


그림 2.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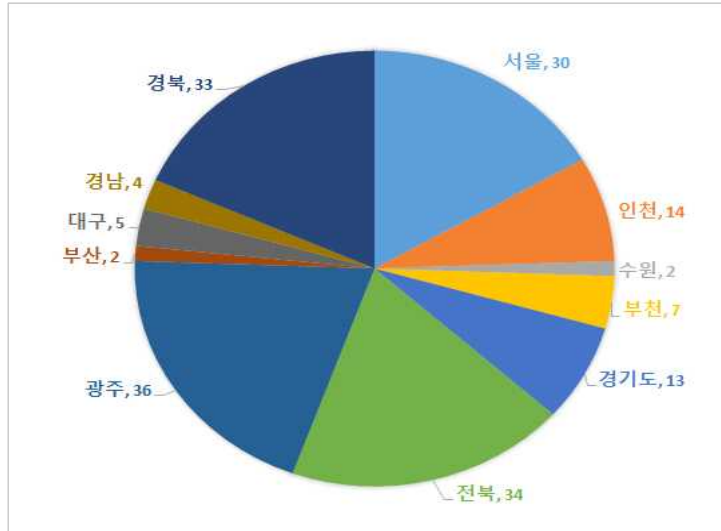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응답자의 연령, 세로축은 연령별 응답자 수

-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광주(20.0%)이고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지역은 전라북도(18.9%), 세 번째는 경주 외 경북지역(18.3%)임. 이 외에도 서울에서 16.7%로 다수 참여함. 이외 지역은 인천과 안산의 경기도 지역이 7%대로 나타나고 기타는 2% 내외(1.1% - 3.9%) 수준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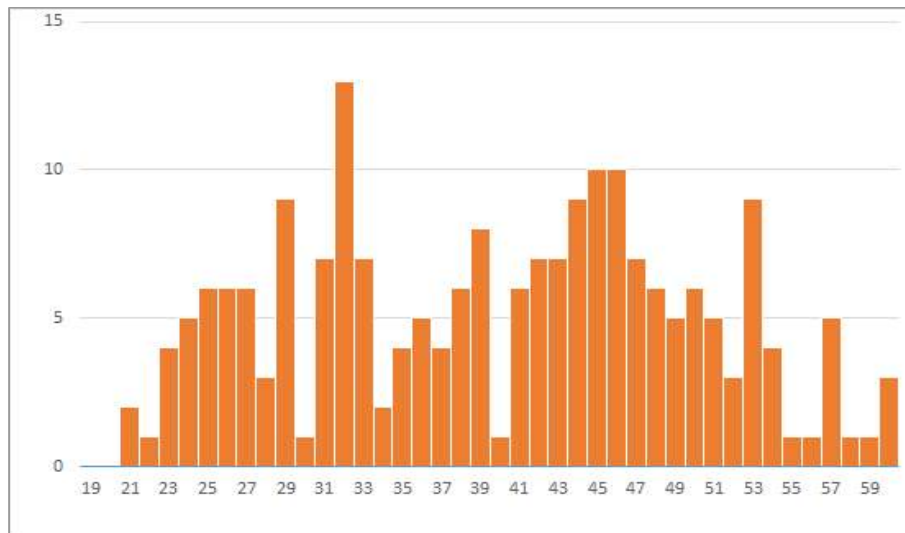


그림 3.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34.3%가 40대, 28.0%가 30대, 19.3%가 50대, 15.9%가 20대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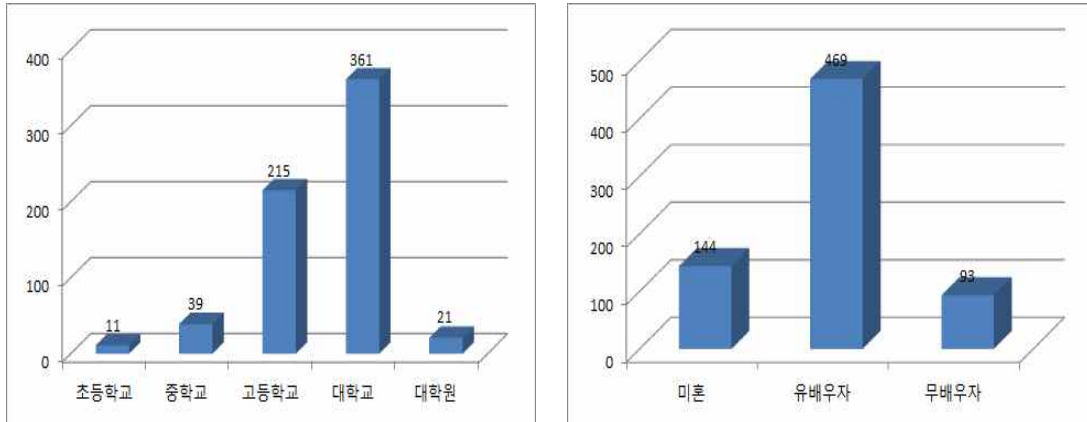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응답자의 연령, 세로축은 연령별 응답자 수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55.8%)가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가(33.2%)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전체의 약 3분의 2인 66.4%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4%가 미혼, 13.2%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이므로 33.6%는 비혼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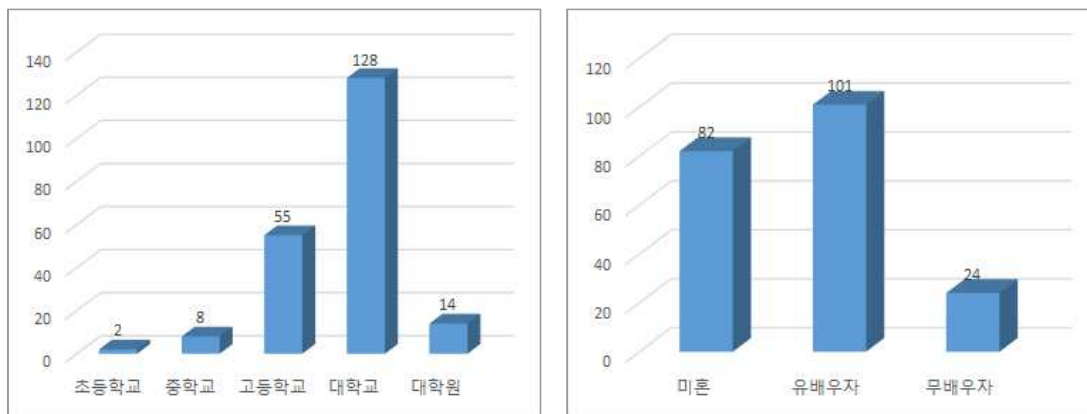
그림 5. 오프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주: 가로축은 학력 또는 혼인상태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61.8%)가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가(26.6%)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 전체의 약 절반수준인 48.8%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6%가 미혼, 11.6%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이므로 온라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2%는 비혼 상태임.

그림 6. 온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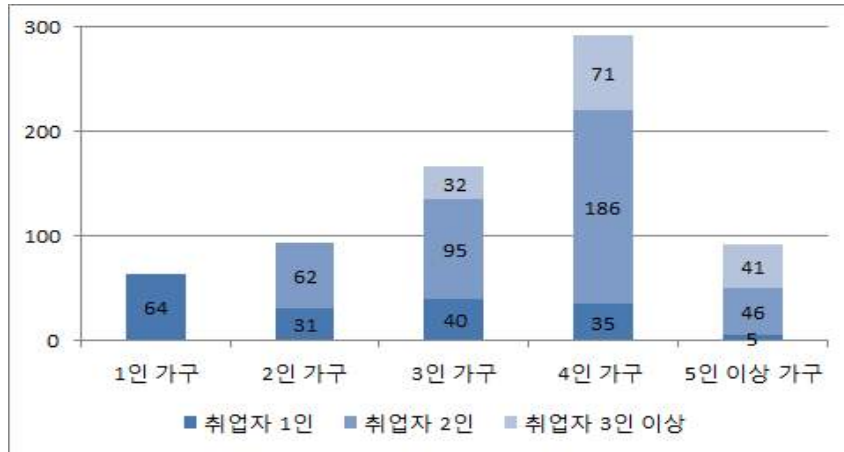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학력 또는 혼인상태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1) 생계비

그림 7.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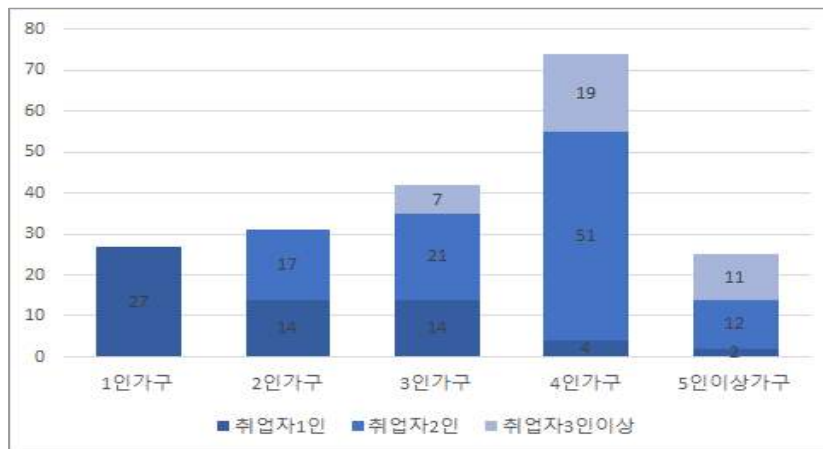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가구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은 4인 가구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23.6%), 2인 가구 (13.3%), 5인 이상 가구(13%), 1인 가구(9%) 순서임. 그림 7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은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임.

-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은 4인 가구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20.3%), 2인 가구 (15.5%), 1인 가구(15%), 5인 가구 (9.2%) 순서임. 그림 8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임.

그림 8. 온라인 응답자들의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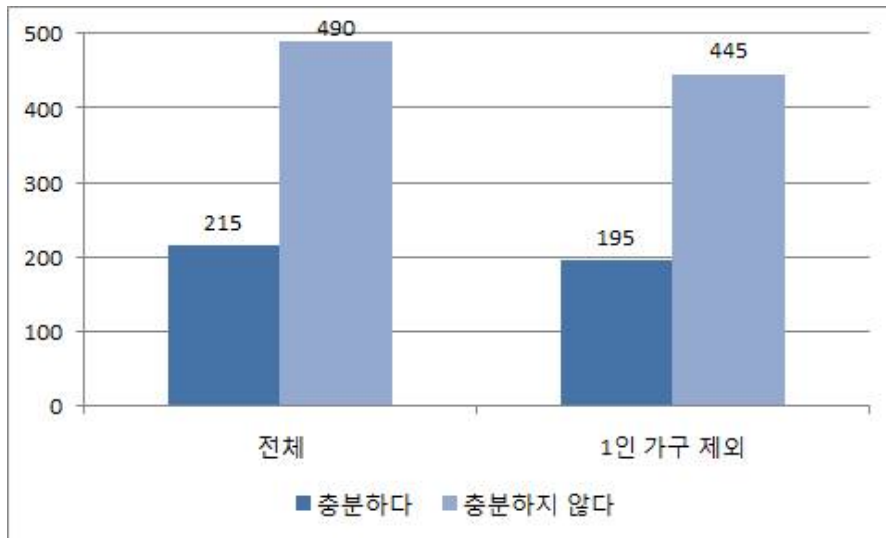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가구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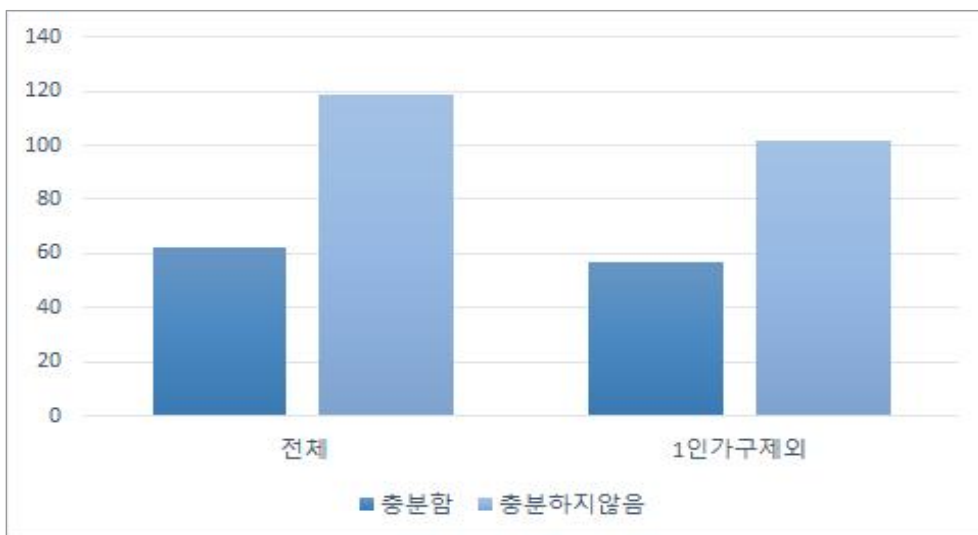
- 그러나 ‘현재 가구 내 취업자의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은 30.5%, 온라인 설문조사는 34.3% 뿐이었음. 1인 가구를 제외해도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거의 같았음.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생계비 부족을 이유로 임금노동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가구 내 취업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비 부족을 경험함.

그림 9.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 한가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10.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 한가 - 온라인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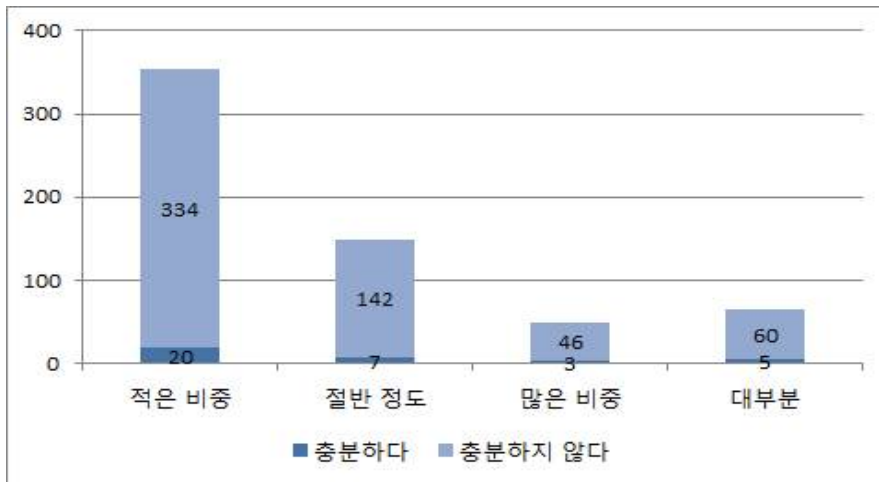
-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92.2%였으며,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더 높은 94.3%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음. 온라인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의 비중이 전체 기준 86.7%, 1인 가구 제외 기준 88.1%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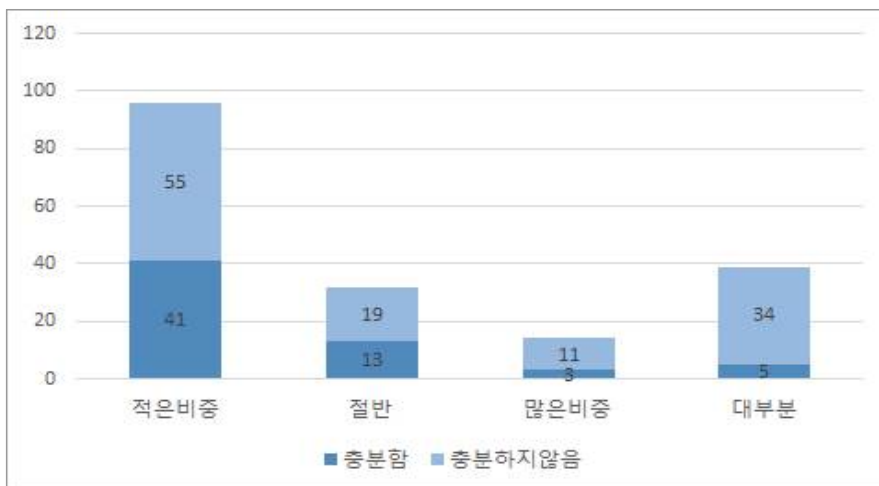
- ‘가구 총 소득 중 자신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2인 이상 가구의 81.8%가 절반 또는 절반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도 2인 이상 가구의 79.3%가 가구 총소득 중 자신의 임금이 절반 또는 절반 이하를 차지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11.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 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 한가 (단위 : 명)



주 : 가로축은 자기 임금의 가구 소득 내 비중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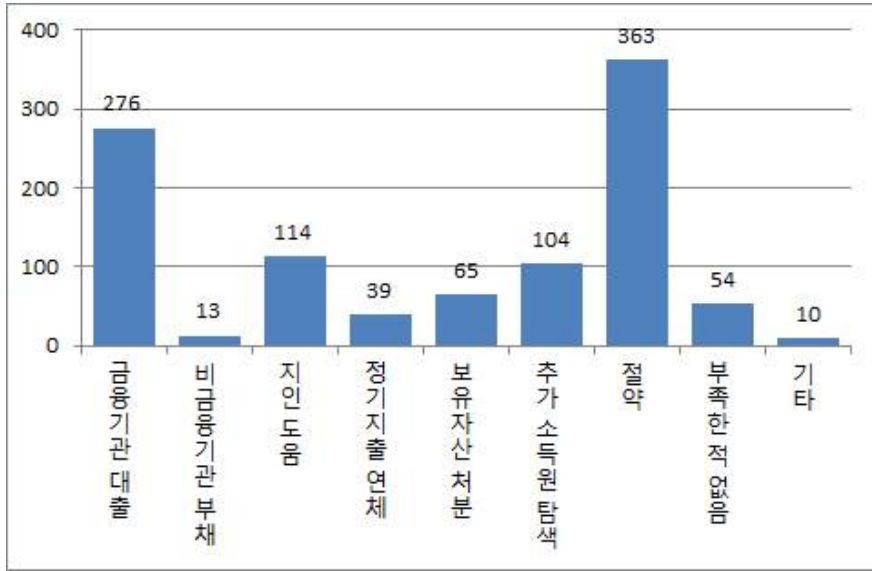
그림 12.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 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 한가 - 온라인



주: 가로축은 자기 임금의 가구 소득 내 비중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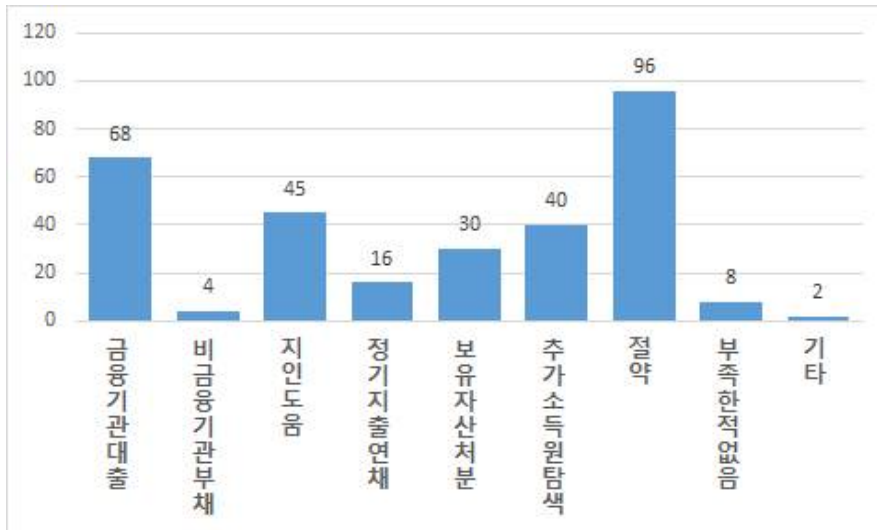
그림 13.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14.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 -온라인

(복수응답, 단위 : 명)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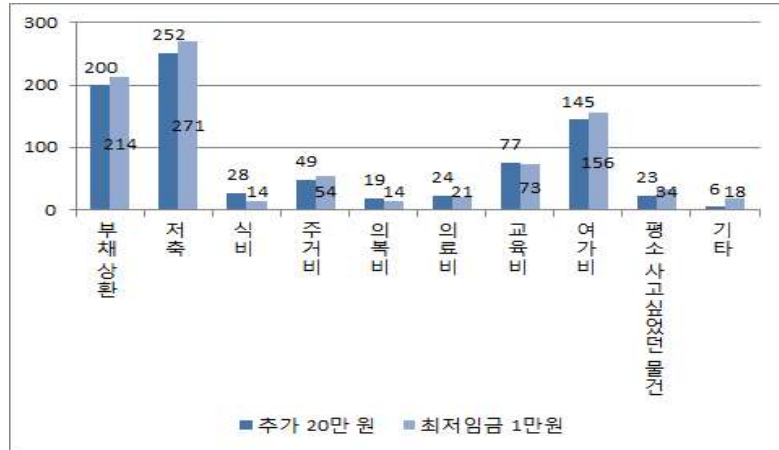
- ‘생계비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생계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오프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한 비중은 단 7.7%였음. 온라인의 경우 더 적은 2.6%에 불과함.

- 가장 많이 선택한 대응방법은 오프라인 조사 결과 절약(52%),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금융기관 대출(39.5%)이었음. 그러나 1순위로 선택된 대응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39.5%)이 절약(28.7%)보다 많았음.



- 온라인 조사 결과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남. 절약(31.1%)가 가장 많이 선택한 대응방법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이 22%로 뒤를 이었음. 또한 동일하게 1순위로 한정했을 때 금융기관 대출이 37.6%로 22.7%였던 절약보다 먼저 대응방법으로 선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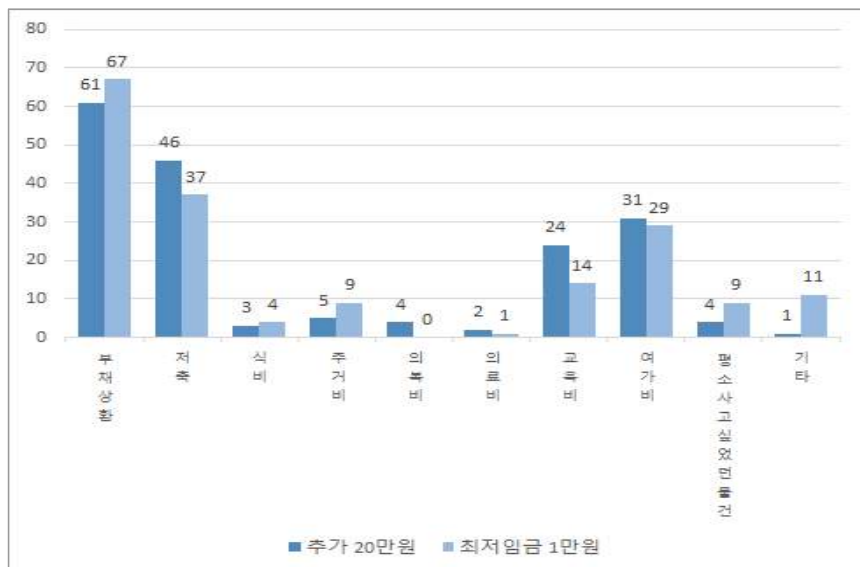
그림 15.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복수응답, 단위 : 명)



추가소득 20만 원 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을 때 사용처를 묻은 질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은 ‘저축’, 다음은 ‘부채 상환’, ‘여가비’ 순이었음. 이는 생계비 부족시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과 일관된 응답임.

온라인의 추가소득 20만원 및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에 대한 반응은 그림 16과 같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부채 상환’이고 두 번째가 ‘저축’, 세 번째가 ‘여가비’임. 오프라인과 같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 3개는 동일하나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부채 상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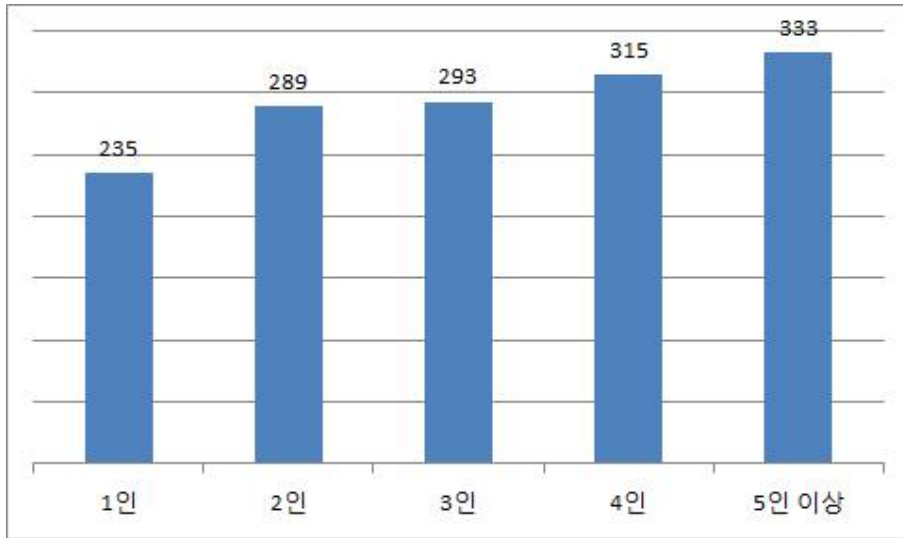
그림 16. 온라인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복수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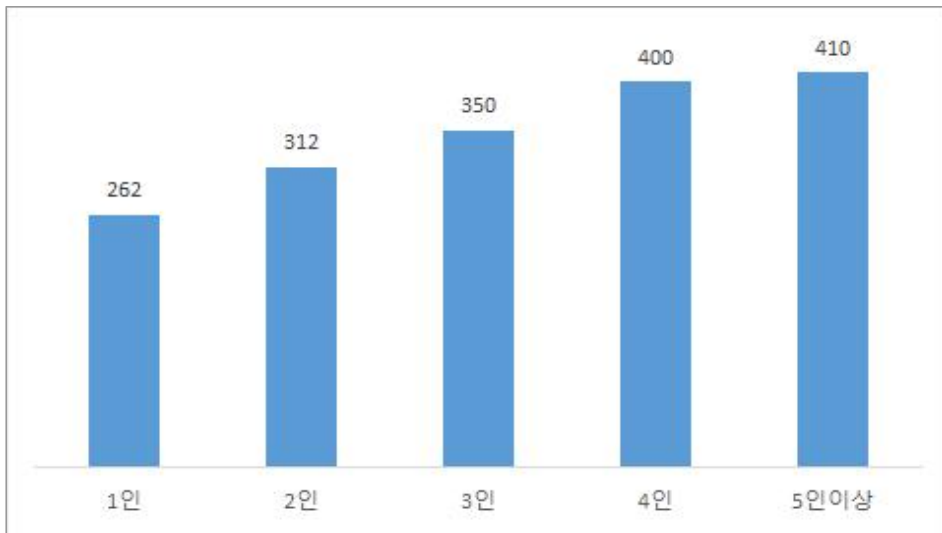
- 그림 17에서 보듯이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가구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평균은 301만 원, 중위는 250만 원, 최빈값은 200만 원이었음.

그림 17.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 (단위 : 만 원)



주: 가로축은 가구규모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18.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 - 온라인 (단위 : 만 원)



주: 가로축은 가구규모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그림 18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식 응답임. 오프라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나 기대 금액은 더 높은 수준임. 평균은 360만 원, 중위는 300만 원, 최빈값은 200만 원이었음.

-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낮지만 후술할 현재 임금수준보다 높음. 이는 생계비 부족을 경험했거나 현재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다고 분석한 결과와 일관됨.

2) 임금실태¹⁾

- [표 1]은 오프라인 응답자 일자리의 업종, 직종 분포를 나타낸 것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7%), 교육서비스업(18.4%)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8.8%), 사무종사자(18.6%) 등이었음.

표 1.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종 분포 (단위 : 명, %)

업종	수	비중	업종	수	비중
제조업	64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7	2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7	1.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	0.2	협회 및 단체, 수치 및 기타서비스업	53	8
건설업	15	2.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14	2.1
도매업 및 소매업	56	8.5	직종	수	비중
운수업	3	0.5	관리자	10	1.5
숙박업 및 음식점업	29	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57	38.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7	1.1	사무종사자	123	18.6
금융 및 보험업	5	0.8	서비스종사자	96	1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2	판매종사자	43	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0.8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서비스업	61	9.2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0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8	4.2
교육서비스	122	18.4	단순노무종사자	90	13.6

1) 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하의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여성 임금노동자 일반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여성 노동자 일반의 실태보다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주요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각 구분 내의 차이와 경향에 집중하여 본다.



- 표 2는 온라인 응답자 일자리의 업종, 직종 분포를 나타낸 것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2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6%) 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9.6%), 사무종사자(29.1%) 등으로 오프라인과 같은 직종에서 많이 응답하였음.

표 2.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업 분포 - 온라인 (단위 : 명, %)

업종	수	비중	업종	수	비중
제조업	10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28	1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	0.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8	4.4	협회 및 단체, 수치 및 기타서비스업	27	15
건설업	1	0.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0	0
도매업 및 소매업	6	3.3	직종	수	비중
운수업	4	2.2	관리자	8	4.4
숙박업 및 음식점업	11	6.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2	3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6	3.3	사무종사자	53	29.1
금융 및 보험업	2	1.1	서비스종사자	27	1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0	판매종사자	9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7.8	농림어업속련종사자	0	0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서비스업	1	0.6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5.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0.6
교육서비스	50	27.8	단순노무종사자	9	5.0

- 평균 임금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95.3%와 온라인 응답자 93.3%는 월 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 단위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2.7%, 온라인 6.1%임. 이밖에 비정기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1.3%, 온라인 0.6%였음.

-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는 사업체 규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0-29인(오프라인 - 25.8%, 온라인 - 28.9%), 다음으로 오프라인은 5-9인(17.5%), 1-4인(17.3%) 순서였으나 온라인은 1-4인(20.6%), 5-9인(16.7%)순서로 많았음. 그러나 둘 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았음.



그림 19.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 (단위 : 명,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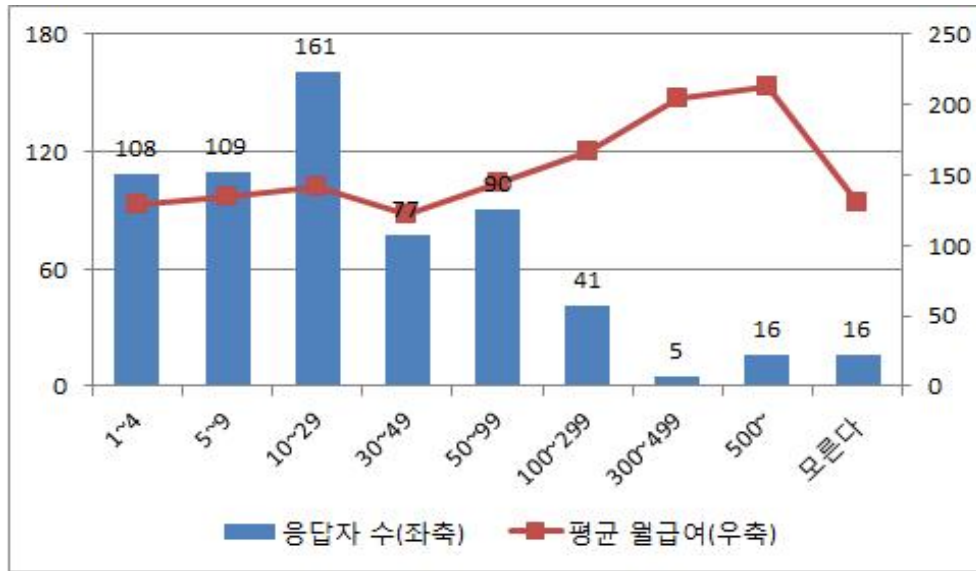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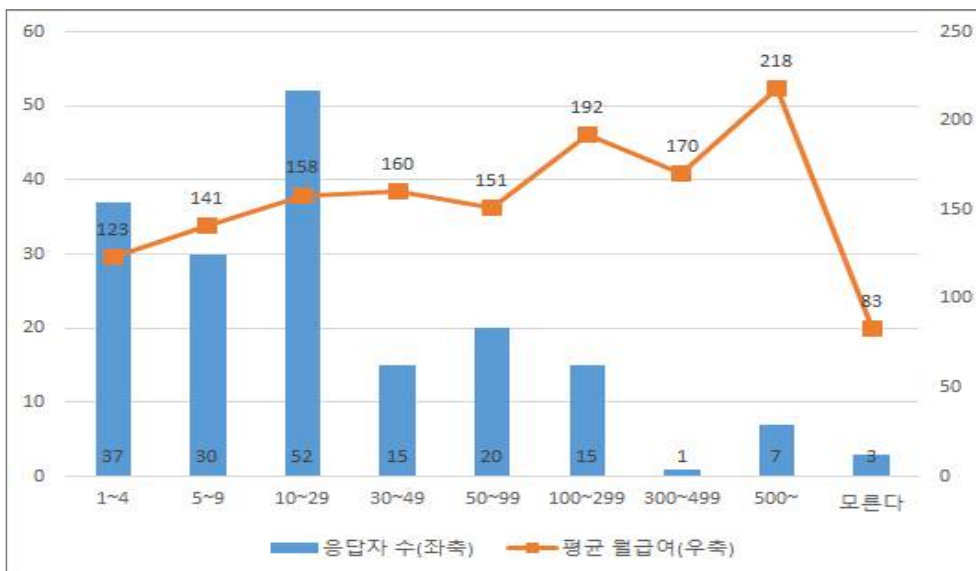


그림 20.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온라인 (단위 : 명, 만 원)



- 월 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9.7만 원, 중위 임금은 135만 원이고, 같은 응답을 한 온라인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6.1만 원, 중위임금은 150만 원 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오프라인 : 121.6만 원 - 213.3만 원, 온라인 : 122.6만 원- 218만 원)을 보임.



표 3. 고용형태별 비중 및 월급여 (단위 : 명, %, 만 원)

	오프라인			온라인		
	수	비중	월급여	수	비중	월급여
정규직	335	51.9	147.9	69	38.3	174.7
계약직(무기)	106	16.4	132.6	54	30.0	149.4
계약직(1년이상)	121	18.8	137.2	25	13.9	147.4
계약직(1년미만)	41	6.4	119.2	21	11.7	98.0
일용직	19	3.0	96.8	0	0	0
파견및용역	17	2.6	141.9	0	0	0
특수형태및기타	6	0.9	137.7	11	6.1	124.0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규직의 임금이 가장 높고 일용직, 1년 미만 계약직 순서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온라인 응답자들의 비중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3개 항목의 합)이 비슷하게 나타남. 임금은 정규직이 가장 높고, 1년 미만 계약직이 가장 낮음.
- 산업과 직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이 206.7만 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가 83.2만 원임.
- 오프라인 응답자들의 직업 중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단위 : 만 원)

업종		업종	
제조업	13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4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4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30.0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서비스업	124.2
건설업	140.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83.2
도매업 및 소매업	146.9	직종	
운수업	190.0	관리자	163.2
숙박업 및 음식점업	116.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128.6	사무종사자	152.6
금융 및 보험업	164.2	서비스종사자	11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0	판매종사자	12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8.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0.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41.8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5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9.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8
교육서비스	140.1	단순노무종사자	133.2



- 온라인 응답자들의 산업과 직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분야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음. 온라인 조사에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산업 응답자가 없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 온라인 응답자들의 중에서는 농업어업숙련종사자가 없었음. 판매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 온라인 (단위 : 만 원)

업종		업종	
제조업	16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34.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9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22.1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서비스업	139.4
건설업	30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
도매업 및 소매업	158.0	직종	
운수업	119.3	관리자	144.1
숙박업 및 음식점업	135.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215.2	사무종사자	161.6
금융 및 보험업	255.0	서비스종사자	14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	판매종사자	1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8.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서비스업	170.0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4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4.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0.0
교육서비스	144.5	단순노무종사자	68.8

- 전일제, 월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 중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고 응답한 299명²⁾을 대상으로 실제 시간당 임금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림 21에서 실제 시간당 임금과 인지된 시간당 임금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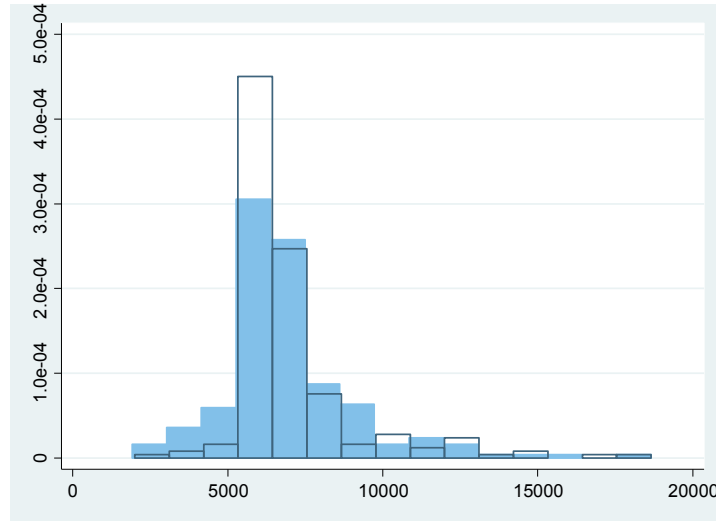
- 실제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인지된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7,852원인데 반해 실제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7,161원임.

2) 소정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1.2%이며, 근무시간의 형태가 다양할 때 주휴수당의 부 정확한 추정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응답자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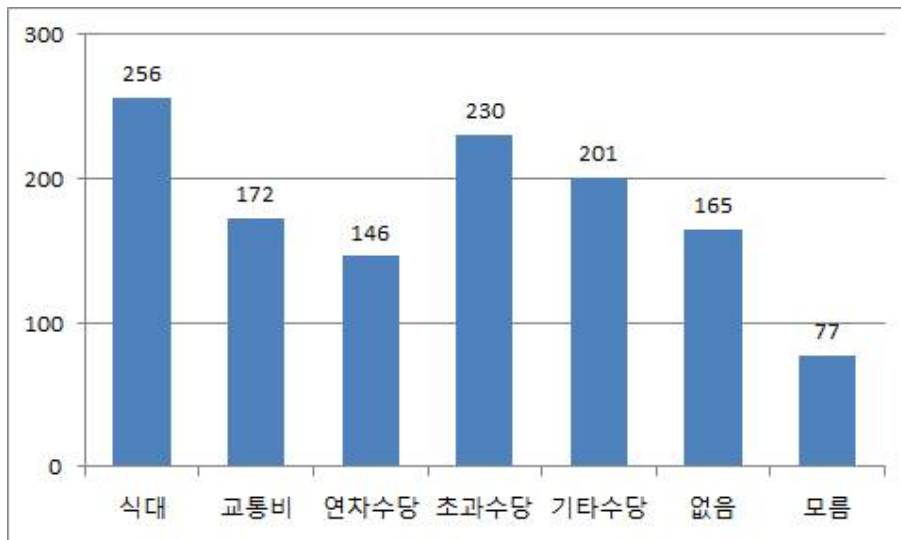


그림 21. 실제 및 인지된 시간당 임금 분포



주: 하늘색 도수분포는 실제 시간당 임금, 빈 사각형 도수분포는 인지된 시간당 임금

그림 22. 임금구성항목(복수응답, 단위 : 명)



-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묻는 질문에서 오프라인 기준 23.8%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21.1%(연차수당) - 37%(식대)에서 선택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주를 고려한 시간당 임금 수준은 더 낮을 수 있음.

3) 최저임금

-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88%가 2016년 최저임금 수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자신이 받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기준 전체의 61.2%, 온라인 기준 58.6% 였음.



표 6. 최저임금 인지 여부 (단위 : 명, %)

	오프라인 설문결과			온라인 설문결과		
	최저임금 이상이다	최저임금 미만이다	전체	최저임금 이상이다	최저임금 미만이다	전체
알고있다	386	231	617	94	65	159
	(55.1)	(33.0)	(88.0)	(51.9)	(35.9)	(87.9)
모른다	43	41	84	12	10	22
	(6.1)	(5.9)	(12.0)	(6.6)	(5.5)	(12.1)
전체	429	272	701	106	75	181
	(61.2)	(38.8)	(100)	(58.6)	(41.4)	(100)

-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는 오프라인 응답자의 37.4%, 온라인 응답자의 40.9%는 자신의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즉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알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 표 7을 참고하면 학력별로는 온라인(59.1%)과 오프라인(68.6%)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의 응답자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응답자(오프라인-33.2%, 온라인-26.6%)가 많았음.

- 학력별 최저임금미만 비율은 오프라인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대졸이상도 31.9%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온라인의 경우 중졸이 가장 적은 비율로 응답함.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군도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응답자 3명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표 7. 학력별 비중 및 학력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단위 : 명, %)

	오프라인				온라인			
	수	비중	최저임금 미만	비중	수	비중	최저임금 미만	비중
초졸이하	11	1.7	7	63.6	2	0.9	2	100
중졸	39	6.0	20	51.3	8	3.9	2	25.0
고졸	215	33.2	91	42.3	55	26.6	28	50.9
대졸 이상	382	59.1	122	31.9	142	68.6	43	30.3
합계	647	100	240	37.1	207	100	75	36.2

-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함.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81.4%, 온라인 응답자의 86.4%는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추정하였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오프라인 : 57.5%, 온라인 : 75.5%) 중 25.7% 또한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함. 다만, 오프라인 응답자들에 비해 온라인 응답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율은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주휴수당 인지 여부 (단위 : 명, %)

	오프라인 설문결과			온라인 설문결과		
	받고있다	받지못하고 있다	전체	받고있다	받지못하고 있다	전체
알고있다	283 (42.9)	98 (14.9)	381 (57.7)	101 (56.1)	35 (19.4)	136 (75.6)
모른다	52 (7.9)	227 (34.4)	279 (42.3)	6 (3.3)	38 (21.1)	44 (24.4)
전체	335 (50.8)	325 (49.2)	660 (100)	107 (59.44)	73 (40.56)	180 (100)

그림 23.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 (복수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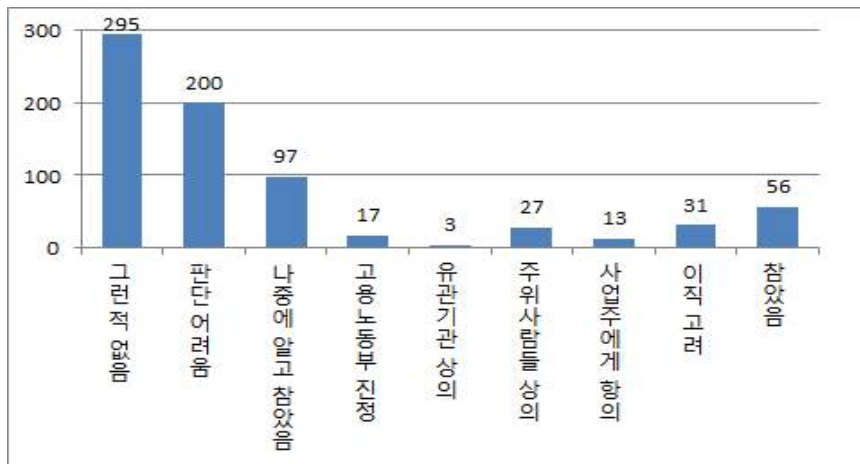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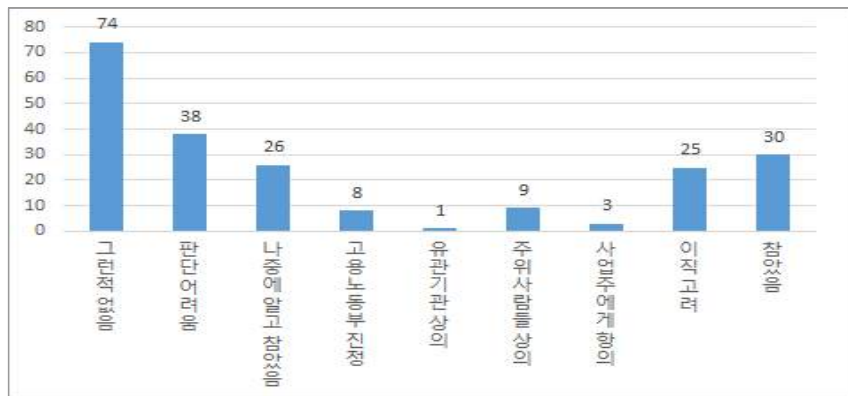


그림 24.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 - 온라인 (복수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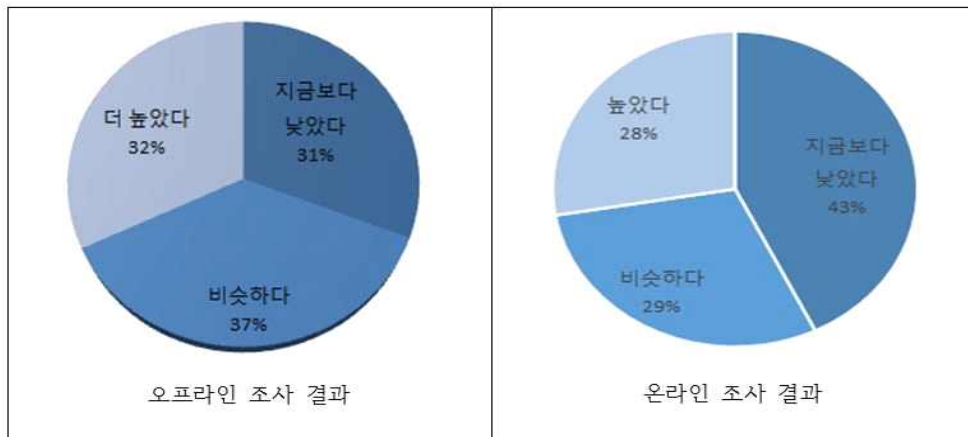


- 과거 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었을 때 오프라인 응답자의 45.3%, 온라인 응답자의 34.58%만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응답자의 30.7%, 온라인 응답자의 17.8%는 판단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나중에 알고 참았음’은 오프라인 14.9%, 온라인 12.2%, ‘참았음’은 오프라인 8.6%, 온라인 14.0%의 응답자가 선택한 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음’은 오프라인 2.6%, 온라인 3.7%, ‘유관기관과 상의함’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0.5%, ‘사업주에게 항의함’은 오프라인 2%, 온라인 1.4%에 불과함.
-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현재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의 비중이 10% 이상이고 그중 다수가 여성이라는 평면적 현실을 통해서가 아니라—노동시장 입직 후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함.
-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공유되고 있음은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여성 다수의 대응이 ‘참았음’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짐.
- 참은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서 대다수의 답은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 “해고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기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동의하고 시작함”이 었음.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특수하지 않다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함.
- 그림 25과 같이 과거 직장과 현재 직장의 임금을 비교하여 달라는 질문에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 9.2%와 온라인 응답자 12.2%를 제외한 응답자들 중 과거에 비해 현재 직장의 임금이 더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31%, 온라인 43%에 불과함.

그림 25. 과거 임금과 현재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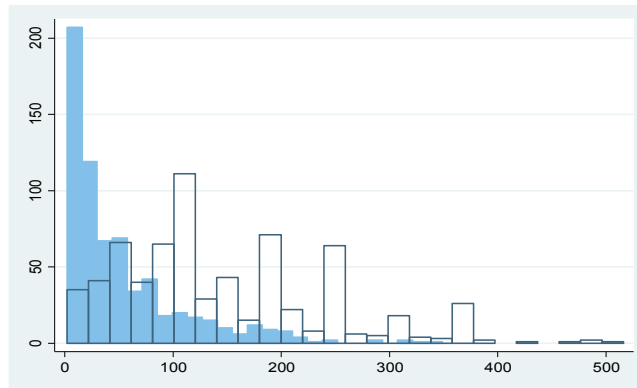


- 현재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과 총 경력기간의 분포를 함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그림 26에서 보듯이, 총 경력기간에 비해 현 직장 근속기간은 왼쪽으로 크게 치우침. 이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직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2개월, 중위는 30.5개월에 불과하지만, 평균 경력기간은 144.1개월, 중위는 120개월이었음.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이 어렵고 경력기간을 걸쳐 축적된 숙련이 외부 노동시장에서 숙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는, 노동조건 개선의 기대가 어려운 영구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에 여성노동자를 가두는 것임.

그림 26.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과 총 경력기간 분포



주: 하늘색 도수분포는 근속기간, 빈 사각형 도수분포는 경력기간

- 임금이 낮은 현재의 일자리를 떠나 다른 일자리로 이직한다고 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 속에서 각인되고 공유되어 불합리한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참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할 것임.

그림 27.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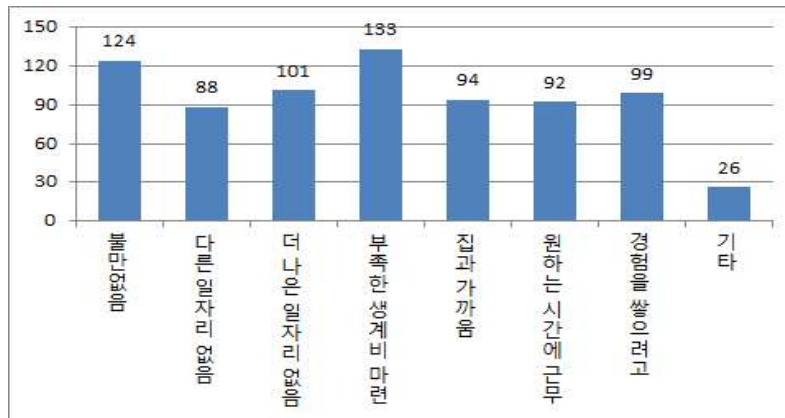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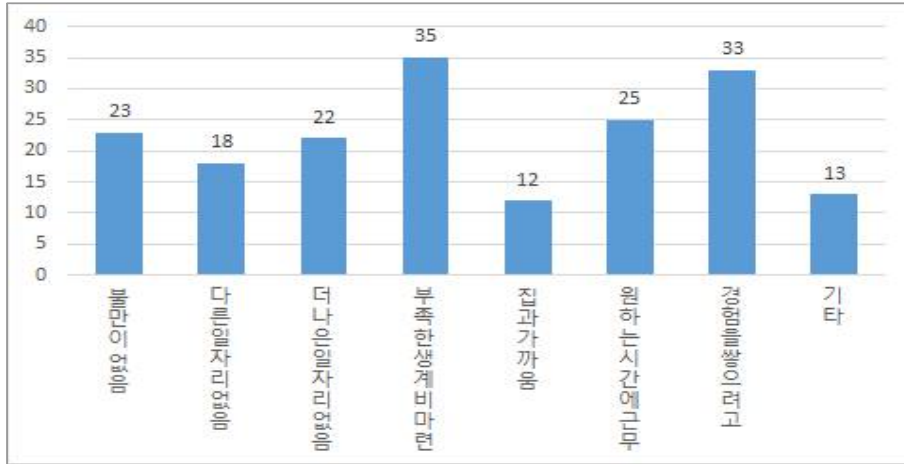




그림 28.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 - 온라인 (단위 : 명)



-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서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만이 없음’이라는 응답은 단 오프라인 기준으로 단 18%였고, 온라인 응답은 그보다 더 적은 12.7%였음.

- 가장 많은 응답은 온·오프라인 모두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둘 다 19.3%)였음.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일자리가 없음’(12.8%), ‘더 나은 일자리가 없음’(14.7%)도 많이 선택된 응답임. 온라인의 경우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18.2%).

4) 기타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중은 오프라인 응답자의 18.9%이고 온라인 응답자의 17.22%였음.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오프라인은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서명’(39%), 온라인은 ‘꼼꼼히 읽고 서명(34%)’였음.

그림 29.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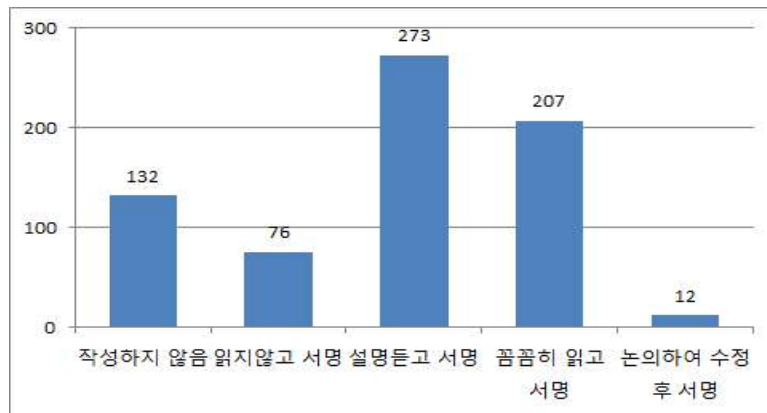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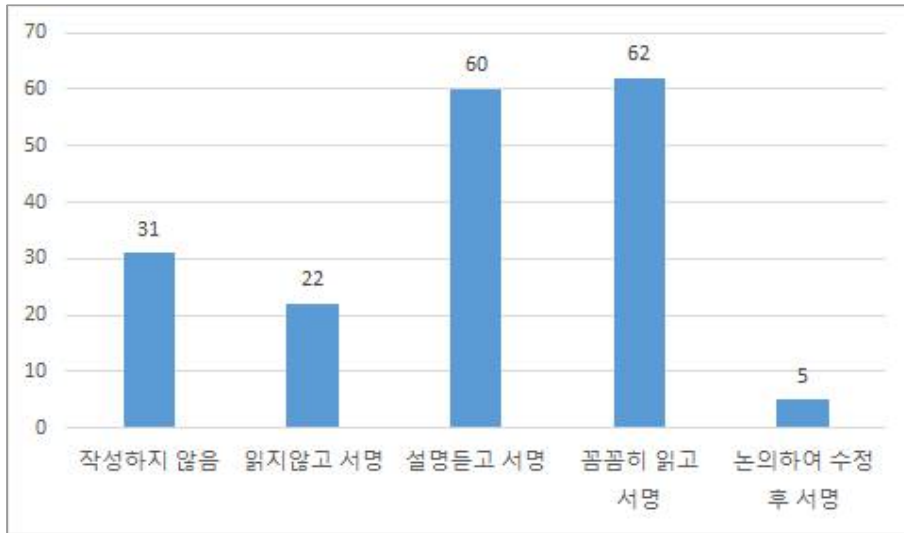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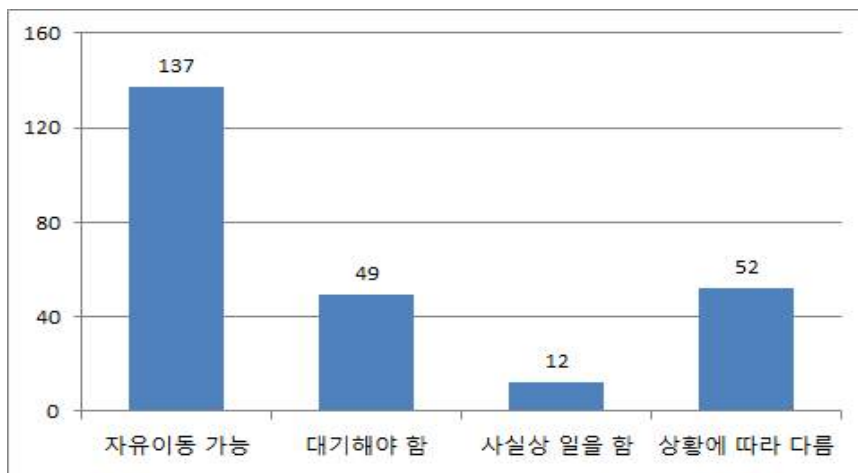
그림 30.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온라인 (단위 : 명)



- 다수가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시간이 존재함.³⁾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지불받지 못하는 임금으로부터 외화된 노동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외화된 노동시간의 존재는 임금을 덜 받는 것과 같음.

-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이 대표적인 외화된 노동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평균 준비 및 정리시간은 32.5분, 중위는 30분이었음. 최빈값 또한 30분이 35.2%, 60분이 18%였음. 그러나 이러한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8.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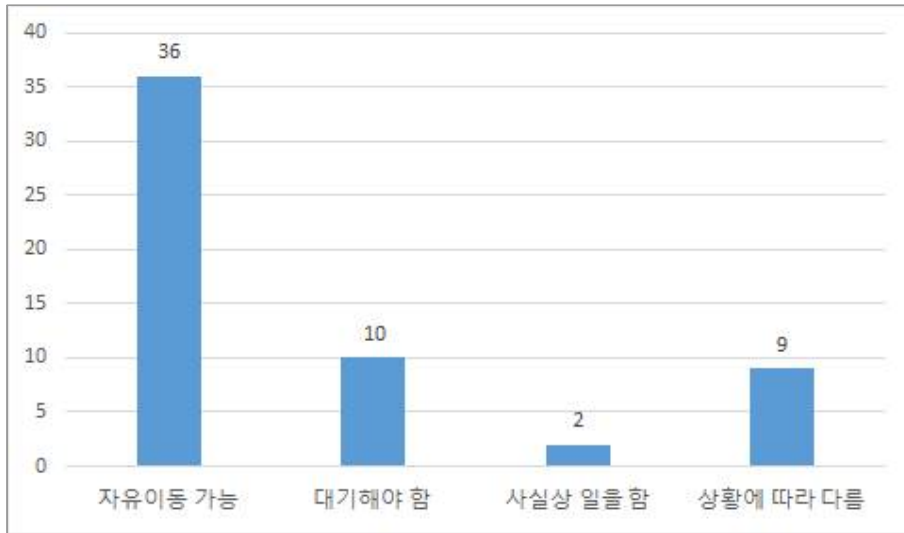
그림 31.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 (단위 : 명)



3) 이에 대해 정의된 용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임의적으로 임금으로부터 '외화된 노동시간' 이라고 쓴다.



그림 32.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 - 온라인 (단위 : 명)



-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휴게시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오프라인 응답의 45% 이상, 온라인 응답의 36%가 자유롭게 근무지 외부를 다녀올 수 없어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오프라인 50.4%, 온라인 54.4%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의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일자리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3. 부당 요구 경험(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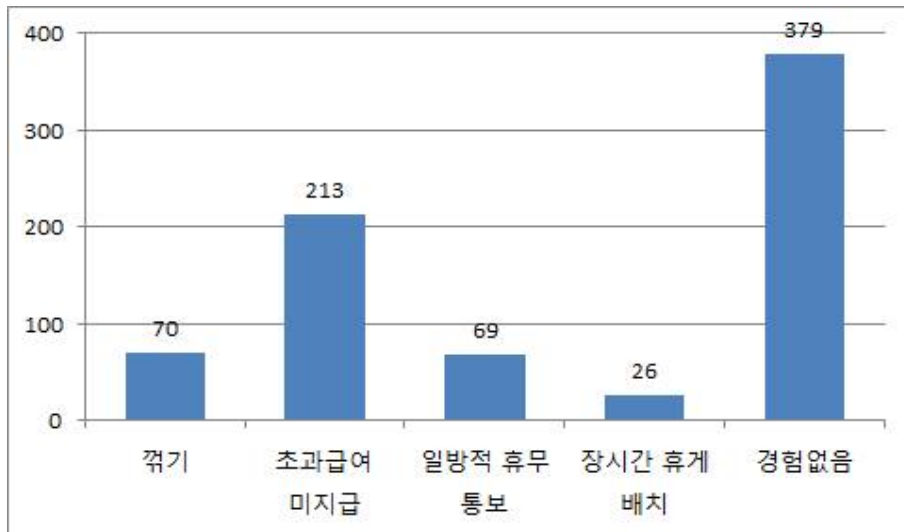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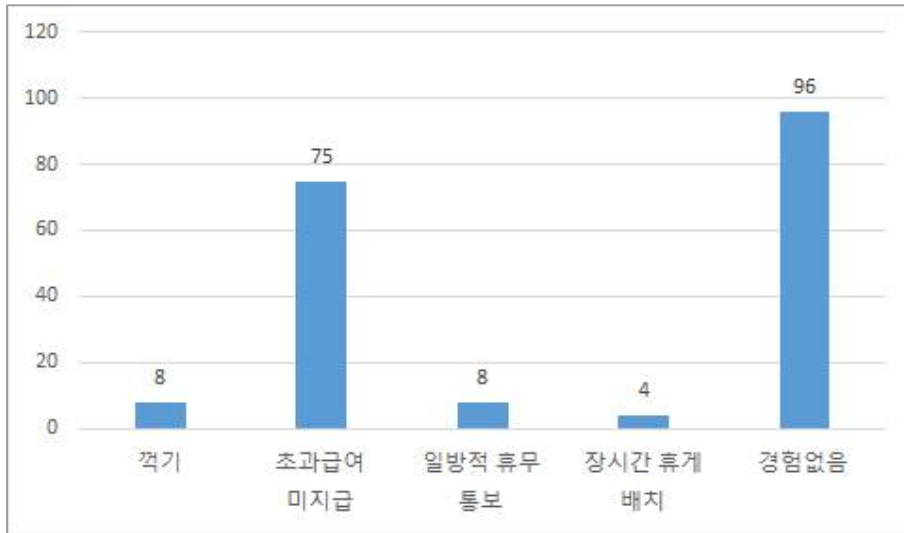




그림 34. 부당 요구 경험 - 온라인 (단위 : 명)



- 노동시간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비중 또한 오프라인 기준 약 45%, 온라인 기준 약 46%로 적지 않음.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 요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보다 더 길게 일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초과급여 미지급’으로 오프라인 응답자의 31.1%, 온라인 응답자의 36.6%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깎은 ‘깎기’는 오프라인 응답자의 10.2%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이 없으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깎기’의 다른 유형 또한 10.1%가 경험했다고 응답함.

-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유니폼을 자비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비중도 오프라인 기준 17.9%, 온라인 기준 26% 임.

- 저임금 노동자들이 외화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부당한 요구, 작업에 필요한 유니폼, 물품 등의 자비 구매 강요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 낮추는 조건의 개선이 시급함.

요약 및 함의

-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도, 가구내 취업자의 총소득으로도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생계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단 7.7%였으며, 현재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 또한 ‘부족한 생계비 마련’(19.3%)이었음.



-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생계비 부족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는 이유인 동시에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겪는 경험하는 현실임.
- 오프라인 응답자의 95%, 온라인 응답자의 93%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불받고 있으며, 이를 노동시간에 의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 주휴수당, 초과급여 등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제외하고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 주요하게 기여하는 원인임.
-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88%의 응답자 중 37.4%(온라인 40.9%)는 자신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참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
-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인지했을 때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참는 것으로, 이직을 해도 임금 수준이 다르지 않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공유된 경험은 불합리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수용하고 참게 만들음.
- 대졸자 여성이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 응답자의 30%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저임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여성이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는 차별적 구조에 있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노동시장 입직 후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
- 외화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부당한 요구 등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 낮추는 조건의 수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되고 유지되는 까닭은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음.
- 최저임금 위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있음. 즉,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이상의 분석은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냄.
- 최저임금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단지 저임금층이 최저임금의 밀접한 영향 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 및 임금을 낮추는 조건들이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으므로 여성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수용하고 유지하는 상호강화 과정이 현재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의 형성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득활동 목적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함.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의하는 저임금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함.

※ 본 내용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의 자료집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그 중 제3장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본 보고서의 완성본은 아래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자료실 : goo.gl/ssgi2v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0월 3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엮담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휴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중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 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